

논문 토론 의견서

주역의 변통적(變通的) 역도(易道), 그 역설(逆說)의 세계와 소통의 메커니즘
-자아실현(自我實現)의 지속가능(持續可能)한 경계(境界)

위 논문은 매우 시의적인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책문(策問)에 답하는 일종의 사회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21세기가 시작하면서 세상이 복잡해지고, 이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야 한다는 논리적 주장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것에 걸 맞는 세상 사람들의 행위를 고무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확실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불확실성은 자연과학적으로 확률(確率)의 문제였지만, 이 의미가 사회적으로 전환(轉換)되면서 공포(恐怖)의 또 다른 표현으로 변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통(變通)자체가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을 상정하고 논하는 것이기에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의 등장에 따른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이것을 새롭게 이야기하는데 본 논문은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역에서 이야기하는 변(變)을 커뮤니케이션의 통(通)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자아실현을 새롭게 이야기하는데 문명사적 의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인류사회가 모여살기 시작한 이후에 나타난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團體)의 존속(存續)과 성장(成長)에는 지속적인 변화와 소통이 필요한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변화(變化)나 소통(疏通)은 점점 더 삶의 실천에 관한 문제로 변이(變移)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아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欲求)는 욕망(慾望)을 넘어 이제 사회적 본능(本能)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바로 본 논문의 쟁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환의식은 맹자한테서 잘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연원을 주역의 역도(易道)에서 끌어낸 것은 관(觀)의 개념이 무엇 때문에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출발점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관찰(觀察)의 시대를 넘어서 성찰(省察)의 시대가 필요하고, 이에 기대서 우리가 통찰(通察)할 수 있는 개인적 역량, 사회적 역량을 쌓는데 동아시아의 사상적 논의에 기초가 되는 주역의 논리에서 커뮤니케이션 역량(일차적인 소통역량)을 접목시키고 논하는 것은 새로운 변통의 지평을 연다고 볼 수 있지요.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폭넓은 논의를 끌어내지 않고 있지만, 그러한 씨앗을 담고 있는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변즉통(變則通), 통즉변(通則變)에 기대는 논리를 벗어나서 커뮤니케이션의 소통(疏通), 교통(交通), 유통(流通), 융통(融通)을 논하는 것은 학자의 탐구심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교통(交通), 유통(流通)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통·유통은 물질적인 것을 실어 나르는 물질적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material communication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기입니다. 주역(周易)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은 천지(天地)의 구조는 시공간(時空間)의 연결망 구조를 말하는 것이라 할 때, 다음의 의미는 물질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요 계사전(繫辭傳) 상(上) 제 11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다.

“ 한번 닫고 한번 여는 것을 변이라 말하고, 가고 오는 것이 다함이 없는 것을 통이라 일컫는다(闔戶謂之坤 闢戶謂之乾 一闔一闢謂之變 往來不窮謂之通).

바로 끊임없이 교통하는, 어떠한 것을 유통시키는 인간계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언택트 문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는 심각한 소통의 문제를 가져오고, 서양식의 자아실현의 방법에 의문을 제기한다. 역도(易道)에는 문명사의 전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데, 오늘 발표한 논문이 이와 같은 것을 소통과 더불어 교통·유통 그리고 나아가 융통의 시대적 필요성을 적절하게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역의 범위를 시대적 문제에 대한 통찰로 연결시켜주셔서 남다른 의미를 주었습니다. 앞으로 본 논문의 이론적 전개에서 제시한 주제를 확대하여 새로운 문명의 문제를 논한다면 연구의 지평선을 매우 넓히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